

시간을 훔쳐 자본주의의 길 연 중세의 고리대금업자들

중세 기독교인들이 바라본 돈과 죄악 그리고 구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성경》 구절이 있다. 이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기독교의 돈에 대한 불신이 여실히 드러난다. 돈에 대한 불신의 시초는 서양 중세의 고리대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의 중세 사학자 자크 르 고프는 《돈과 구원》(김정희, 이학사)에서 고리대금이야말로 12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양에서 경제와 종교, 돈과 구원의 문제가 뒤얽혀 큰 위력을 발휘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낡은 상징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억누르고, 근대성은 신성불가침한 금기들 사이로 힘겹게 진전했던 시대, 또 역사의 간계(奸計)로 말미암아 종교 권력이 휘두른 탄압 속에서 세속적 성공의 수단들이 발견되었던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고리대금이 기독교의 억압을 뚫고 상행위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은 “자본주의 출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리대금은 시간을 훔치는 것이다 고리대금은 13세기에 서서히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서기 1000년 이후 눈부시게 성장해온 기독교는 그 무렵 절정기에 이르렀지만 입지는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화폐경제가 급성장하고 널리 퍼져 나가면서 기독교적인 기존의 가치들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리대금업자는 끔찍한 흡혈귀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고리대금업자는 “돈이 승자이며 왕이며 통치자인 사회”의 주민으로 치부됐다.

교회법은 앞다퉈 고리대금을 죄악으로 명시했다. 우르비누스 3세의 교령 《콘솔루이트》에는 “고리는 대부의 대가로 빌려준 것을 초과하여 요구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리를 취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이 금지한 죄악”이라고 공포했다. 이 시대에 고리대금은 “범죄보다 더한 죄악”이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해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지 이자 대출의 경우는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단정지었다.

중세 기독교인들은 또한 고리대금을 절도행위로 규정지었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자가 훔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자크 르 고프는 말한다. “실제로 그는 돈을 빌려주는 시점과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받는 시점 사이에 흘러간 시간 말고 무엇을 판단 말인가?”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시간은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므로 시간을 훔치는 고리대금업자는 하나님의 재산을 훔치는 것이 된다. 《예화 일람》에는 이렇게 표현돼 있다. “그들(고리대금업자들)은 돈에 대한 기다림, 즉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팔지 않으니 결국 낮과 밤들을 파는 격이 된다. 그러나 낮은 광명의 시간인요 밤은 휴식의 시간인 까닭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빛과 휴식을 파는 것이 된다.”

자본주의 기반 마련해준 연옥이라는 희망 고리대금업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었다. 단테의 《신곡》에 따르면 그들은 신성을 모독한 사람과 동성애자들이 있는 곳보다 더 가혹한 곳인 제7옥 제3의 울타리에 놓여 있었다. 중세인들의 텍스트에는 고리대금업자의 죽음이 당시 기독교인 으로서는 최악의 죽음인 급사(急死)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자들에게 구원은 전혀 불가능한 것인가. 고리대금업자들에 대한 구원의 수단이 기독교 안에서 제기된 것은 이미 자본이 성장하면서 기독교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사실 기독교가 불신앙(不信仰)으로 고리대금업자를 규정한 것은 중세 기독교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에 불과했다고 자크 르 고프는 말한다. 13세기는 이미 천상의 가치들이 지상으로 내려온 시대였다. 종교는 사물의 껍데기에 원칙을 부과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에 스며들어 지상의 즐거움에 매료돼 있는 사람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리대금업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로써 기독교는 고리대금에 절제라는 덕목을 부과해 이자율을 조정함으로써 고리대금업을 서서히 용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들의 돈을 모두 “토해내지” 않은 이상 여전히 이들의 지옥행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연옥이다. 연옥은 비록 지옥에 속해 있지만, 죄담음을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된 곳이다. 자크 르 고프가 말하듯 “연옥은 정말이지 기독교가 13세기에 고리대금업자에게 보낸 눈짓 중의 하나”였고 “희망”이었다. 연옥 덕택에 지옥을 면하게 되리라는 희망은 고리대금업자들이 13세기의 경제와 사회를 이끌고 자본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근 기자